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 간 상관관계연구

김진영, 김주리*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in-Young Kim, Ju-Ri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m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간호전문직관의 긍정적인 정립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전략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G시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59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5일간)이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3.97로 사회적 인식이 낮았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은 2.95로 신생아 생명권이 가장 높고 인공임신중절과 안락사가 낮았다. 자기성찰지능은 3.79로 자기반성과 자기이해는 높으나 자기설계가 낮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자기성찰지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긍정적인 정립을 위한 간호교육 전략은 자기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성찰지능 증진 교육과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루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전문직관, 생명의료, 윤리, 자기성찰지능,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included 159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3, 2018 to December 7 (5 days).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97 with low social awareness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as 2.95 with high right to life of newborn and organ transplantation but low artificial abortion and euthanasia. Intrapersonal intelligence was 3.79, which showed high self reflection and self-understanding but low self-planning.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31,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r=.39,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 a result, the nursing education strategy for positive establishmen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needs to be provided with education to improve intrapersonal intelligence that can improve self-development and education that deals with the foundati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Professionalism, Biomedical, Ethics, Intrapers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u-Ri Kim(kimjuri200@kyungmin.ac.kr)

Received January 19,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15,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구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고유한 지식체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토콜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사에게는 전문직으로 직업에 대한 뚜렷한 소명감과 긍지 곧 전문직 정체성이 요구된다[1]. 전문직 정체성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써 능력을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다[1]. 그러나 자신의 간호가치관이 확고히 다져지기도 전에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간호사가 된 후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갈등과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 결여가 초래될 수 있다[2].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간호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들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업의 의식적인 견해를 간호전문직관이라고 하며 간호 전문인으로서 개인적 만족감은 물론 대중들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요소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들 수 있다[4].

생명의료윤리는 생명공학과 의학적 기술에 의해 발생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되었다[5]. 간호사는 연명의료치료중단, 임신중절, 안락사 등과 같은 인간의 생의윤리에 직면한 문제를 간호현장에서 접하게 되는데[6] 간호대학생이 어떤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졸업 후 수행하는 전문직 간호와도 직결되기에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7].

특히,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가족과 격리되어 병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흔하다[8]. 간호사들이 환자의 죽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공감피로, 소진, 직무만족 저하, 이직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9]. 간호대학생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없이 환자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갈등상황을 겪게 된다[10].

성찰은 자신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11], 간호사의 실무에 대한 성찰은 환자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또한 성찰수준이 높은 학

생은 임상 실습 중 진단적 사고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자기-조절 학습을 할 경우 효율감과 자율성이 더 높아진다[13]. 이러한 성찰에는 자기성찰지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성찰지능은 Gardner가 제안한 8가지 다중지능 중 하나로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말한다[14].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을 자신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성찰을 다루는 것으로 정서를 포함한 개인의 이해와 조절 및 자기설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보았으며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인을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기설계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15].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와[16]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17]결과를 볼 때 자기이해의 상위개념인 자기성찰지능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요인이 된다[4].

따라서 간호대상자의 안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교육에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문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

식 및 자기성찰지능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일 G 지역 소재 대학의 2학년 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의향하는 경우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의 필요한 대상자 수 산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G*power 3.1.9.2프로그램으로 상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3[18],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최소한의 표본 수는 134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모집된 연구대상자는 164명이었다. 164명 중 5명이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총 15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어 최소표본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Yeon, Kwon과 Ahn[19]이 개발하고 Kim[2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연구도 Cronbach's α .83이었다.

2.3.2 생명의료윤리의식

본 연구에서는 Kwon[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인간생명공학에 대한 9개 영역,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Likert 4점 척도로 반대 1점에서 찬성 4점이며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0이었다.

2.3.3 자기성찰지능

본 연구에서는 Ahn과 Oh[21]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반성, 자기이해, 자기조

절 및 정서활용, 자기설계에 대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찰지능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94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연구도 Cronbach's α .84였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 간이었다.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구하였다. 대상자 간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21.4 ± 2.95 세였고, 성별은 남학생 20명 (12.6%), 여학생 139명 (87.4%)이었다. 대상자 중 99명 (62.3%)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114명 (71.7%)의 학생이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9)

Variables	Categories	N(%) or M \pm SD
Age		21.4 \pm 2.95
Gender	Male	20 (12.6)
	Female	139 (87.4)
Religion	Yes	99 (62.3)
	No	60 (37.7)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ied	114 (71.7)
	Satisfied	45 (28.3)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3.97±0.41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전문직 자아개념 4.00±0.49점, 사회적 인식 3.06±0.66점, 간호의 전문성 3.95±0.60점, 간호 실무역할 4.06±0.60점, 간호의 독자성 4.20±0.7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2.95±0.19점이며 하위 영역별로 태아생명권 2.80±0.66점, 인공임신중절 2.62±0.43점, 인공수정 3.00±0.50점, 태아진단 3.12±0.39점, 신생아 생명권 3.29±0.50점, 안락사 2.71±0.43점, 장기이식 3.26±0.46점, 뇌사 2.90±.38점, 인간생명공학 2.95±0.3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59)

Variables	Categories	M±SD
Nursing professionalism		3.97±0.4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00±0.49
	Social awareness	3.06±0.66
	Professional of nursing	3.95±0.60
	Roles of nursing service	4.06±0.60
	Originality of nursing	4.20±0.76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95±0.19
	Right of fetus	2.80±0.66
	Artificial abortion	2.62±0.43
	Artificial insemination	3.00±0.50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12±0.39
	Right to life of newborn	3.29±0.50
	Euthanasia	2.71±0.43
	Organ transplantation	3.26±0.46
	Brain death	2.90±0.38
	Human biotechnology	2.95±0.34
Intrapersonal intelligence		3.79±0.42
	Self-understanding	3.91±0.69
	Self-planning	3.57±0.66
	Self-control & utilizing	3.65±0.49
	Self-reflection	4.16±0.47

자기성찰지능 점수는 3.79±0.4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자기반성 4.16±0.47점, 자기이해 3.91±0.69

점,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3.65±0.49점, 자기설계 3.57±0.66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t=2.22, p=.028), 전공만족도(t=3.04, 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성찰지능은 전공만족도(t=4.8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9)

Variable Categorie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trapers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p)	M±SD	t (p)	M±SD	t(p)	
Gender	Male	3.00 ±0.18	1.28 (.20)	3.87 ±0.53	0.94 (.35)	3.95 ±0.40	2.22 (.03)
	Female	2.94 ±0.19		3.77 ±0.40		3.73 ±0.40	
Religion	Yes	2.94 ±0.19	-1.78 (.08)	3.74 ±0.39	-0.97 (.33)	3.75 ±0.37	-0.52 (.60)
	No	2.97 ±0.18		3.86 ±0.44		3.78 ±0.46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ied	2.96 ±0.19	1.45 (.15)	3.88 ±0.40	4.82 (<.01)	3.82 ±0.40	3.04 (.01)
	Satisfied	2.91 ±0.16		3.55 ±0.36		3.61 ±0.39	

3.4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자기성찰지능 간의 관계

간호전문직관과 생명의료윤리의식은(r=.31, p<.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성찰지능 간에도 (r=.39, p<.001)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59)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p)	r(p)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31 (<.001)	
Intrapersonal intelligence	.39 (<.001)	.14 (.078)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자기성찰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전략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7점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 환산 시 약 79점 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호 Moon[4]의 연구결과인 3.90점(100점 만점 환산 시 78점)과 비슷하였다.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을 제외한 4가지 영역에서(간호의 독자성, 간호 실무 역할,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의 전문성) 3.97~4.20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 인식이 평균 3.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역할을 높은 인식과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낮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은 높으나 실제적으로 느끼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간호사의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며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영향을 끼쳐 간호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고 볼 수 있다 [20]. 따라서 간호학 교육 과정을 통해 임상 간호사의 실제 전문적인 이미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성공한 사례와 같은 주제로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95점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 환산 시 약 74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과 Park[21]의 연구결과인 3.03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75점)과 비슷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생명권, 장기이식은 높은 수준으로 인공임신중절과 안락사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파악한 Moon[4]의 연구에서도 신생아 생명권이 높은 수준으로 안락사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중 신생아 생명권이 높은 수준을 보인 결과는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생명에 대한 중절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22] 간호대학생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식 중 안락사가 낮은 수준을 보인 결과는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죽음이 간호대학생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어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기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영역으로 사료된다. 한편 간호현장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생명의

료윤리의식 수준은 평균 3.03점으로 나타나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경험이 간호대학생 시기에 확립된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23].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은 졸업 후 전문직 간호와도 직결되기에[7]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성찰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 환산 시 약 76점이었다. 선행연구[24]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을 본 연구와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구 결과는 3.55점(100점 만점 환산 시 약 71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성찰지능이 약간 높았다. 자기성찰지능을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능력인 자기반성은[15] 4.16점, 자신의 강점과 단점에 대한 각성과 상황에 따른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수준인 자기이해가[15] 3.91점,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정서와 행동의 조절능력인 자기조절 및 활용은[15] 3.65점, 자신의 목표에 대한 설정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화능력인 자기설계가[15] 3.5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목표성취를 위한 동기화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성찰지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 선행연구에서 자기성찰지능보다는 대인관계지능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관계가 있다고 하여 추후 대인관계지능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 간 차이에서는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약 90%가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성찰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올라갈수록 간호전문직관 점수와 자기성찰지능 점수도 유의하게 높으며 Park[20]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성찰지능을 높이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과외 활동을 개발하여 적용시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자기성찰지능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전문직관과 생명의료윤리의식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Moon [4, 2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이 높고 자기성찰지능이 증진될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된다[14]. 그러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자기성찰지능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생명존중의식, 윤리적 가치관, 성태도, 자녀관이라 하였다[27]. 이에 생명의료윤리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이해, 조절 및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인 자기성찰지능을[14]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보다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자기성찰지능이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기에 완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간호전문직관과의 긍정적 정립을 위해서 생명의료윤리의식 내용과 더불어 자기성찰지능 증진 내용을 반영하는 교육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자기성찰지능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긍정적인 정립을 위한 간호교육 전략으로 자기계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성찰지능 교육과 임상 간호사의 실제 전문적인 이미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성공한 사례와 같은 주제로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더 많은 표본 수 확보와 지역을 추가하여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같은 다양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영향요인들을 파악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I. Kim & E. J. Shin. (2013).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Identity. *Social Workers VS Nurs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0(1), 23-49.
- [2] M. Y. Park & S. Y. Kim. (2000).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6(1), 23-35.
- [3] D. Adams, B. K. Miller. (2001). Professionalism in nursing behaviors of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7(4), 203-210.
- [4] M. Y. Moon. (2018). Effects of Ethical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efore Applying Nursing Ethics educ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305-314.
- [5] S. J. Kwon. (200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Daegu: Keimyung University.
- [6] Y. I. Moon & H. R. Park & Y. R. Tak & M. A. Kim & S.A. Kim & K.S. Park. (2003). A Study on the Clinical Nurse's Ethical Valu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 9(4), 541-557.
- [7] Y. H. Kwon. (2009).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 262-272.
- [8] S. Y. Kim, S. S. Hur, B. H. Kim (2014). Study of Subjective View on the Meaning of Well-Dying Held by 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ing Students: Based on Q-Methodology,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7(1), 10-17
- [9] N. J. Bush, D. A. Boyle.(2012). *Self-healing through reflection: A workbook for nurses*. Pittsburgh: Hygeia Media.
- [10] S. H. Kim, D. H. Kim. (201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3), 277-286
- [11] Boud D, Keogh R, Walker D. (1985) *Reflection: Turning experience into learning*. London , 43.
- [12] Gustafsson C, Fagerberg I. (2004) Reflection, the way to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3(3) , 271-280
- [13] Sobral DT. (2000) An appraisal of medical students' reflection-inlearning. *Medical Education*, 34(3), 182-187
- [14]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
- [15] O. J. Kwon. (2008).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and enhanc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Desertation]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162
- [16] H. R. Ahn & H. J. B. (1995). The Effects of Self Understanding and Family System Functioning Group

Therapy on the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4(2), 38-59.

- [17] T. S. Ahn & Y. A. Song. (2015). Affecting factors of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1(1), 10-17.
- [18] H. C. Kang & K. P. Yeon & S. T. Han. (2015).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5), 641-649.
- [19] E. J. Yeun &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20]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1(2), 227.
- [21] M. H. Lim & C. S. Park.(2014).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7), 4423-4431.
- [22] C. S. Park. (2004). An attitude of the with holding treatment. *Seoul: Catholic University*.
- [23] E. S. Choi. (2015). *Nurse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their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onju: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24] J. M. Kim & S. K. Hong. (2016). Influence of self-reflection, self-esteem and empathy on happiness index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2(2), 113-120.
- [25] Guerrero, et al (2019).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Skills of Nursing Students: Its Relevance in the Goal of Patient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esearch Health Sciences*, 8(4), 30-38.
- [26] E. J. Seo. & N. H. Cha. (2016).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349-358.
DOI : 10.14400/JDC.2016.14.5.349
- [27] K. J. Kim, E. Lee & Y. S Park (2016) Comparison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77-388
DOI : 10.14400/JDC.2016.14.12.377

김진영(Kim Jin-Young)

[정회원]



- 200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07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피부비만관리학 (피부비만관리학석사)
- 2017년 8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7년 3월 ~ 2020년 2월 : 서영대학교간호학과조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간호교육
- E-Mail : kjin80@kyungmin.ac.kr

김주리(Kim Ju-Ri)

[정회원]



- 200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0년 8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경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메타 분석
- E-Mail : kimjuri200@Kyungmin.ac.kr